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결과 및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6.27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및
6.28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결과 아래 보고함.

I. 핵심요지

1.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 (6.27) 결과

- DAC 사무국은 회원국의 향후 3년간의 수원
국가별 ODA 지출계획을 조사하고 동 결과
를 발표함. 동 조사 실시 배경은 향후 공여국
의 ODA 총액이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개별
수원국별로 지원받을 ODA규모를 파악하여
수원국의 빈곤퇴치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배로 늘리겠다
(doubling)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아직 구

체적인 지출계획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
였으며,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
증가는 2009년 또는 2010년에 이루어질
전망

- 금번 조사는 DAC 회원국 및 5개 국제기구
(WB, EC, UNDP, UNICEF, IMF)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미국, 이태리 등 다수 G7 국
가들이 참여하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총 ODA 흐름의 약 27%를 가지
고 분석한 결과).
- 미국은 현재 ODA 개혁작업을 진행중이라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힘.
- 금번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도 △긴급원조,
난민지원, 부채탕감 등 상당수 ODA 사업은
미래의 배정계획을 미리 수립하기 어렵고,
△특정국가에 대한 지출계획 외에 국가를 특
정하지 않은 배정(global allocation)이 있
으며, △국내예산규정상 미래의 지출계획 수립
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forward

data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사방법론의 개선을 촉구함.

- 독일,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미래의 지출계획 파악은 수원국의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공여국간 원조조정 및 원조계획 수립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여국의 행태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의 지출계획조사 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함.

2.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6.28) 결과

-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협력관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회원국이면서 DAC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는 8개국은 현재 모든 DAC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DAC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동 국가들을 여타 Non-DAC 공여국으로부터 구별하여 추진하기로 함.
- 우선 동 국가들을 “OECD member DAC observers”라 명명하고, 동 국가에 대한 협력은 outreach라는 용어 대신에 inreach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 국가에 대한 정책협력을 아래와 같이 추진
 - 매년 12월 SLM 회의 직전에 DAC 의장과 의 비공식대화 개최
 - 금년 10.12~13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DAC 회원국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정책대화 개최 (DAC 가입 준비를 위한 사전 정책대화 프로세스, 원조효과 아젠다, 통계 등을 다루기로 함)

- 한편, 체크는 DAC 가입 준비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협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국의 ODA에 대한 DAC의 light peer review를 받기를 희망함.

-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 표명. 다만, 소요비용은 체크 정부가 부담

- 여타 Non-DAC 공여국은 BRIC's, 아랍공여국, Non-OECD EU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을 추진하고 원조효과 개선에 중점을 두며 점진적 협력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3. 관찰 및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아직 DAC 비회원국으로서 금번 향후 3년간의 ODA 지출계획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었지만, 우리의 ODA 선진화를 위해 현재의 1년 단위 사업계획 외에 3년 단위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Non-DAC 공여국과 DAC 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위한 이스탄불 회의(10.12-13)는 DAC 회원국과 OECD내 DAC 비회원국간에 최초로 개최되는 정책대화임을 감안, 동 회의에 본부대표단의 참석을 건의함.

II. 상세 논의내용

1. 제3차 ODA 확대에 관한 OECD/WB 합동회의(6.27)

■ DAC 사무국은 회원국의 향후 3년간의 수원 국가별 ODA 지출계획,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 다자간 원조 및 양자간 원조간의 배분, 중점지원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동 결과를 발표함. 동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간 다수 공여국이 ODA 확대를 공약함에 따라 ODA 총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수원국별로 지원받을 ODA 규모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수원국의 빈곤 퇴치계획 수립이 어렵고, 그만큼 원조효과가 줄어들다는 인식에 따라 원조효과 증진차원에서 추진하였음.

■ 이번 조사결과 파악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상세 DCD /RD (2006)2/RD4 참조)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두배로 늘리겠다(doubling)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아직 구체적인 지출계획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 증가는 2009년이나 2010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2004년도에 5억불 이상의 원조를 받았던 상위 16개국 중 탄자니아, 베트남, 파키스탄, 모잠비크, 우간다, 수단, 케냐, 말라위 및 루안다는 향후 3년간 20% 내지 25%의

수원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PNG 및 부르키나파소는 정체상태로 예상되며, 이 디오피아와 스리랑카는 각각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 또한, 네팔, 아이티, 동티모르는 20 내지 25%의 감소가 예상됨.
- 과테말라, 모로코, 터키, 엘살바돌, 알제리아, 도미니카공, 쿠바, 소말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튀니지아 11개국은 2008년까지 원조가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국가중 9개국만이(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이디오피아, 수단, 케냐, 잠비아, 말라위, 앙골라) 5천만불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과 볼리비아는 공여국들이 선호하는 수원국(donor darlings)으로서 앞으로도 원조규모가 계속 증가할 전망

■ 동 조사작업은 22개 DAC 회원국 및 5개 구제기구(WB, EC, UNDP, UNICEF, IMF)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미국, 이태리 등 다수 G7 국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6개국만이 향후 3년간의 지출계획을 밝힘에 따라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음.

- 총 ODA 흐름의 약 27%만 가지고 분석을 실시함.

■ 미국은 현재 국내에서 ODA 개혁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전체 ODA의 4분의1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한 결론은 사실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금번 조사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지리 등 다수 국가들은 국가별 배분과 global allocation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인도적 지원, 긴급 원조, 난민지원, 부채탕감 등 forward data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실제 자국 총 ODA의 약 25%만 커버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조사의 방법론의 개선을 촉구함.

■ 일본은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공여국내 예산관련 규정상 정확한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시험적으로 다년간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함.

■ 그러나, 독일, 캐나다 등 다수국가는 동 작업 결과가 수원국의 빈곤퇴치계획 수립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지원계획수립 및 공여국간 원조조화 추진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당장은 정보제공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공여국의 행태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동 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함.

2. DAC 정기회의(6.28)

가.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협력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회원국으면서

DAC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는 8개국은 현재 모든 DAC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DAC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동 국가들을 여타 Non-DAC 공여국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하기로 함.

■ 우선 동 국가들을 “OECD member DAC observers”라 명명하고, 동 국가에 대한 협력은 outreach라는 용어 대신에 inreach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 국가에 대한 정책협력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매년 12월 SLM 회의 직전에 DAC 의장과의 비공식대화

- 금년 10.12-13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DAC 회원국과 OECD member DAC observers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동 정책대화에서 아래 이슈를 다루기로 함.

- DAC 가입 준비를 위한 사전 정책대화 프로세스
- 원조효과 아젠다
- 통계와 보고
- 기술협력
- 체제전환국 및 신흥경제국가에 대한 원조
- institution building

■ 체크는 추후 DAC 가입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협력법 제정을 준비하는 것 외에 자국의 ODA에 대한 DAC의 light peer review를 받기를 희망한 바, 대다수 회원국들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음. 다만, peer

review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7-8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음을 감안, 체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음.

- 여타 Non-DAC 공여국은 BRIC's, 아랍공여국, Non-OECD EU 회원국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을 추진하며 원조효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나. PARIS21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방향

- PARIS21이 최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PARIS21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그룹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PARIS21의 NSDS(National Strategy on Development Statistics)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PARIS21의 제반 활동 및 사업계획이 적절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mandate를 새로이 준비토록 권고
 - 따라서 PARIS21 운영그룹은 PARIS21을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키로 하고, 사무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PARIS21의 향후 주요 업무영역을 개발통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advocacy), 전략이행지원, 개도국의 활동 및 공여국 원조활동 조정, 통계 기술지원 등으로 규정.
 - PARIS21과 OECD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설

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까지 합의서 준비 및 승인에 관한 일정을 제시

- DAC는 PARIS21의 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통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개도국내 능력개발, 그간 수립된 전략의 이행 등을 주문하였음.

※ PARIS21(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은 1999년 UN 결의에 따라 개도국에서 개발 관련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결정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국 정부, 국제기구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개도국 및 공여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OECD 개발협력국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다. DAC과 시민단체(CSO)와의 관계

- DAC과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사무국 폐이퍼를 검토한 바, 일부 국가들이 시민단체와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대다수 참가자들은 주로 아래와 같이 대체로 유보적 의견들을 제시하였음.
 - 시민단체의 참여시 유의한 input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환영하나, 예산 및 행정적 부담 측면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주요 회의 계기에 DAC 의장이 시민단

체와의 개별적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작업반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음.

- 시민단체들이 DAC 본회의에 한번 참가하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강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시민단체와 민간기업과는 구별해서 대처해야 함.

■ 다만, Bill Gates 재단과 같이 대규모 개발원조재단과의 협조문제는 DAC차원에서 유익하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도국의 의료보건, 농업 등 공통관심사에 대한 합동회의 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라. DAC 산하기구 통폐합

■ DAC의 2007-08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DAC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DAC 산하기구의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사무국 폐이퍼를 중심으로 brainstorming 기회를 가졌음.

■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현 체제에서 약간의 통폐합을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대대적인 통폐합을 선

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DAC 본회의에서 Peer Review, 커뮤니케이션, Non-DAC 공여국과의 협력, 정책일관성, 원조 언타잉 등을 직접 다루고, POVNET에서 투자문제를 함께 다루며, 분쟁방지(CPDC)와 취약국가그룹을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음.

■ 다만,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별도의 그룹으로 신설할 것인지 또는 현재와 같이 ad-hoc basis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렸으며, 원조규모 확대 및 원조체제를 별도의 그룹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독일 등이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음.

■ 또한 산하기구 회의에 국제기구 및 개도국 대표를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추가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음.

마. 자발적기여금 관리계좌

■ 과거에 회원국이 자발적기여금을 제공할 때마다 별도의 합의서 및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사무국의 행정적 부담이 너무 많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AC은 그간 자발적 기여금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음.

■ 이에 따라 사무국은 자발적 기여금 관리계좌를 18개로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나, informal group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통폐합을 더욱 강화하여 10개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음.

■ 일본은 informal group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 계좌의 통합은 이해하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예를 들어 non-DAC 공여국과의 대화)을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당초의 합의 사항에 위배됨을 들어 유보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결국 의장은 일부 국가들이 계좌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나마 10개로 하여 여타 모든 국가들이 타협하였음을 설명하고, 일본만이 유일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국 정부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자료: 주오이시디대사관]